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캘거리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월 12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 예전부터 계속 찾아보다가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하였습니다. 서류 준비는 쓰여있는 대로 준비하였고, 저는 영어점수가 없었지만 그만큼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우선 합격한 학생들끼리 카톡방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담당자 분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모르는게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항공권은 담당자 분께서 학교 프로그램과 알맞은 항공권을 추천해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전후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틀정도 더 여행하고 싶어서 자율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항공권 구매는 빠르게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비자 신청도 자세하게 안내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꼭 캐나다 공식 비자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학교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수업 사이의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기숙사에서 주로 수업하는 공간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캠퍼스 대학교 근처는 주로 자연이 이루고 있어 시내까지 나가려면 학교 정문에서 씨트레인을 타고 나가야합니다. 다만 자연이 많아서인지 학교 안에 토끼와 청설모가 정말 많았습니다. 현지 날씨는 한국에 비하면 추웠습니다. 저는 처음 도착했을 때 비가 정말 많이 와서인지 많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끝방이었어서 외풍이 많이 들어 7월임에도 기모 옷을 구매해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안오기 시작하고 나서는 대부분 아침 저녁에 약간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과목은 총 3가지였습니다. 매일 오전 수업으로는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대부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문법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오후 수업으로는 발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발음 방법과 발음 표기법을 배우며 영어 발음이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후 수업에는 토론 수업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다같이 토론하고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교육과 다른점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바라는 사회였다면 캐나다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천천히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질문하고 틀려도 된다는 인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영어를 하는데 있어서 빠르게 적응하고 겁을 없앨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길을 걷다보면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스몰토크를 하는 문화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 대화를 이어나가는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세상의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가장 아쉬운점이 스몰토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우리나라 사회가 정이 없는 거 같아 아쉬웠습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기숙사는 혼자 살기에도, 다같이 살기에도 좋았습니다. 큰 거실과, 주방이 있고 거기서 보통 친구들과 떠돌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이 따로 있다보니 혼자 있고 싶을 땐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사는 물가가 비싼 편이라 재료를 사서 다같이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다같이 구매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보며 재밌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 학생이면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큰 도서관과 학교에 많은 음식점, 카페들이 들어와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었던 학교 시설은 다양한 기구와 트랙이 있는 2층짜리 헬스장과 스케이트장, 수영장, 아웃도어 스포츠 시설 등 학생들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어학연수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매주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캐나다 문화체험을 하고 세상을 더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캘거리는 해가 늦게 저 밤 10시가 되도록 해가지지 않아 방심할 수 있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공간이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시큐리티가 있어 괜찮지만 시내로 나가면 홀리스가 돌아다닙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길거리에 누워서 마약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캐나다 도착한 첫날 공원에서 피자를 먹는데 홀리스가 다가와 음식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관련 사진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University of Calgary)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캘거리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15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기존에 갖고 있던 토익 자격증을 지원서류에 첨부해 영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단점을 어필하고, 어학연수에 합격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esl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끼리 갈등상황이 생겼을 시 대처법, 긴급상황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술했습니다. 이후 면접을 위해 간단한 질문을 5-6개정도 예상해 미리 노트에 적은후 영어 답변을 구상해 준비해갔습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유학원에서 먼저 1차로 온라인 줌미팅을 열어 학교전반적인 시설인 기숙사, 전반적인 학교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International house, 카페테리아와 체육시설들을 안내받으며 학교 시설을 숙지하며 전반적인 준비물을 캐리어에 담았고, 카톡으로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항공권 구매와 여행자 보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 출국 몇주전 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진행하신 OT에서 항공권과 비자 준비등 필수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앨버타주의 남쪽에 위치해있는 지역에 위치해있어 버스를 타고 2-3시간정도 가면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크기는 굉장히 넓고 쾌적하면서도 기숙사 주변에 주요 이용 시설인 edc(Education building), IH(International house), 카페테리아가 밀집돼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캠퍼스 전반적으로 넓은 잔디가 있어서 밤에는 스프링클러를 뿌리니 다닐 때 옷이 젖지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램을 타고 시내, 다운타운까지는 한 30분 정도가 걸리고 역도 학교 기숙사에서 10-15분 거리에 있기에 여가시설 접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씨는 도착한 당일에는 비가 왔었는데, 이후에는 가끔씩만 오고 보통 청명하고 습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아 굉장히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해도 최소 9시 30분이 넘어야 지기 시작해 늦게 놀러나가도 아직 밖이 밝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잠깐 나오는 햇빛이 뜨거워 선크림이나 양산 사용을 추천합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문학수업인 literature circle, 문법과 기본 영어표현을 배우는 communication class 그리고 영어 발음을 배우는 pronunciation class 이 3가지로 나뉘져있습니다. 주로 앉아서 강의를 듣는 형식이 많은 국내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와 발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론에만 집중한 수업이 아닌 활동형 수업이 많았고 조별로 앉아 파트너나 조원들과 함께 과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학생들의 졸음방지 겸 집중을 유도할 수 있게 수업내용에 관한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미국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퀘벡이라는 프랑스령이었던 지역도 있는 캐나다의 특별한 특성을 공공시설 여기저기에 동시에 써져있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데오와 마차경주, 캐나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퍼레이드등 다양성을 포용하는 캐나다의 따뜻한 문화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생활도 그렇고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니 혹시 따라갈 수 없을까봐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 스피킹에 자신이 없어 소통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잘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모르는 것도 자주 질문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영어로 나눠보니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대담하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간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아냐보다 모르는 걸 얼마나 질문할 수 있는지, 그 용기가 중요한 걸 수업을 하며 계속 느꼈습니다. 같은 클래스메이트와 선생님께 열정적인 태도를 칭찬받을 때 제일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홈스테이에서는 식사를 제공해주나 기숙사는 학생들 개인이 기숙사에서 요리를 하거나 학교 MacEwan hall 건물에 모여있는 푸드코트에서 사먹거나 배달로 해결해야했습니다. 매번 배달이나 외식을 하기에 물가가 조금 부담스럽기에 룸메이트들과 함께 가까운 마트에서 미리 식료품을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과 한국 라면정도는 어느 마트에서든 팔기 때문에 굳이 H마트를 가지않아도 어느정도 한국식량을 구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한국식 쌀로 만든 즉석밥은 잘 보이지 않아서 기숙사에 사는 경우 한국에서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에선 고기가 함유된 식품 반입에 까다로워 라면등을 들고온다면 성분확인을 꼼꼼히 할 것 권유합니다.

####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어학연수 프로그램 자체에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Ucalgary activity program이 있습니다. ESL프로그램 신청 후 입학전 메일로 미리 신청 공지가 날아오는데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이때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절마다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웰컴파티, 졸업파티, 무비 나잇, 보드게임 파티등 다양하고 여름에 할 수 있는 유료신청 프로그램들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산과 호수가 많은 캘거리 특성상 주변 국립공원인 Banff와 Lake Louise를 볼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과 2박 3일동안 숙박하며 산과 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Jasper trip등이 있었습니다.

ESL프로그램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영장, 도서관,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을 IH (International house) 데스크에서 수령한 후 태그하는 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은 기본 피트니스 센터부터 클라이밍과 테니스장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수영장 시설도 작은 사우나와 샤워시설이 다 구비되어있는 깔끔한 곳이기에 이용을 강력 추천합니다.

####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학교 주변은 대부분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다운타운, 지상에서 탈 수 있는 캘거리 트램인 c-train을 타고 시내로 나갔을 때 종종 노숙자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너무 늦은 시간 (밤 10시 이후)에는 일행과 함께 움직일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거의 안전하다 느꼈지만 한번 정신적 이상이 있는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온 이후에는 혼자다니는 것을 조심해야했습니다. 이외에 소소한 문화충격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장애인 전용 문, 거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구비)이 많다는 점과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 화장실 문틈이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것은 남녀 화장실 외에도 가끔 모든성별(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종종 볼 수 있었던 점 같습니다.

####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 월      4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지난해 휴학생일 때부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상 참여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꼭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로 떠나는 만큼 기본적인 회화 실력은 갖추고 가야겠다고 생각해 작년 11월에 오픽 학원에 등록해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IH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영어 표현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부했던 경험은 교내 면접을 볼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말씀드려야 했는데, 오픽을 준비하며 연습했던 자기소개 덕분에 막힘없이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이후 출국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인 eTA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서류가 나와서 출국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메일 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안내해 주셔서 서류 준비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항공권 구매는 가급적 일찍 서두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와 친구는 출국 1~2달 전에 미리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출국 3주 전에 구매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수십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학연수 시작 전 밴쿠버를 5일 동안 먼저 여행한 뒤 캘거리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지내보니 어학연수가 끝난 후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연수가 끝날 무렵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아쉬움이 커지기도 하고 현지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가 되므로, 연수 전보다는 연수가 끝난 뒤에 여행 일정을 잡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자 발급의 경우 eTA 신청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다만 대행업체를 통한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캐나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 시 검색 광고 링크나 유료 대행 사이트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주소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 학교 크기 및 시설

캘거리대학교는 한국에서 다녔던 캠퍼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규모가 크고 시설도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특히 보안과 학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니카드(학생증)나 기숙사 열쇠가 없으면 출입하기 어려운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서관의 경우 2층 이상 공간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유니카드를 태그해야만 입장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학교는 캘거리 다운타운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심과 떨어져 있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변화가 특유의 혼잡함이나 위험 요소가 없어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운타운과 달리 주변에 홈리스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저녁 늦게 여자 혼자 산책을 나가도 전혀 무섭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매우 안전하고 정돈된 동네였습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만 걸어나가면 마트와 소소한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상권이 있어 일상적인 장보기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산책 겸 걸어 다니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으며, 동네 주민분들도 대부분 친절하고 다정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평화롭고 부촌 같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 현지 날씨

캘거리의 여름 날씨는 한국의 여름과 비교했을 때 기대 이상으로 쾌적하고 훌륭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캘거리의 날씨가 가장 그리울 정도입니다.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햇볕 아래에 서 있으면 따뜻하고 활기찬 여름을 느낄 수 있지만, 그늘 밑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마치 가을철처럼 선선하고 쾌적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습도가 높지 않아 땀이 나거나 찝찝한 느낌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활동하기에 최고의 기후 조건 덕분에 어학연수 생활 전체를 쾌적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수업 진행 방식 및 분위기**

이론 수업은 생각했던 대학 강의 스타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내 대학교처럼 교수님이 강의를 전담하여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중고등학교처럼 학급 담임선생님이 계시고 발음이나 그룹 활동 등 특정 영역마다 전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유로웠으나, 대학 수준의 학술적인 강의보다는 학원이나 학교 체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레벨 테스트 및 반 배정의 아쉬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레벨 테스트와 그에 따른 반 배정 과정이었습니다. 현지 도착 전 치른 레벨 테스트 당시에 시간도 다소 부족했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낮은 반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정된 반에서는 복수명사나 단수명사 구분 등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기본적인 문법 요소들을 주로 다루어, 개인적으로 학업적 자극이나 어학 실력을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레벨 테스트가 연수 전체의 수업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급 구성 및 환경**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들의 구성 측면에서도 기대와는 조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학급 인원의 대부분이 한국인 학생이었고 외국인 학생은 둘 정도에 불과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친구들과 활발히 대화하며 회화 실력을 빠르게 늘리고자 했던 초기 목표를 100%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환경적인 아쉬움은 있었으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 회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다음 기수로 참가하는 후배 학생들이 액티비티 참여 여부를 고민한다면, 약간의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야외 체험 프로그램만큼은 전부 신청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밴프나 재스퍼 같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명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준비해서 다녀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 대비 만족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했습니다. 처음 신청하고 결제할 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난 뒤에는 단 1원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켈거리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환경과 웅장한 풍경은 연수가 끝난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가장 깊은 잔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무비 나잇이나 포커 게임 등 다양한 교내 이벤트 활동은 구성이 알차고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외국인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기보다는 이미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추억을 쌓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문화 체험을 통해 켈거리라는 도시의 압도적인 자연이 주는 치유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강의실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건문을 크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처음에는 홈스테이와 기숙사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기숙사를 선택한 것은 연수 기간 중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등하교해야 하는 홈스테이와 달리 기숙사는 학교와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평소 밤산책을 좋아하는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숙사 형태 또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각자 독립된 개인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되면서도, 공동 거실에서는 룸메이트들과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방이 한국의 제 방보다 훨씬 넓고 쾌적해서 한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방이 왜 이렇게 좁은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숙사 특유의 열린 분위기가 좋았는데, 서로 다른 방을 편하게 오가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고,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과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거나 방으로 초대하는 등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또한 기숙사는 직접 음식을 해 먹기에도 정말 편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 타입의 조리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었고, 성능 좋은 오븐도 갖춰져 있어 스테이크를 자주 구워 먹곤 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직접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 자체가 소소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먹고 싶었던 다양한 현지 식재료와 음식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수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어학연수 생활 전체가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숙소 유형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기숙사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캠퍼스 내 복지 및 체육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만족스럽게 이용했습니다. 유니카드만 제시하면 수영장과 헬스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시설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어서 연수 기간 동안 꾸준히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 외에도 올림픽 홀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즐기는 등 다채로운 스포츠 활동을 체험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도서관 학습 공간에서는 집중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무료 귀마개를 제공하는 등 섬세한 편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규 동아리나 대형 프로그램 외에도, 어학연수생들을 위해 마련된 웰컴 파티나 졸업 파티 같은 전용 행사가 알차게 진행되어 현지 생활에 즐겁게 적응하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 현지 안전 및 문화적 주의사항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상이 있지만, 생각보다 마약이나 홈리스 이슈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수 지역인 캘거리는 다른 도시에 비해 치안이 양호하고 한적한 편이지만, 밴쿠버의 경우 특정 거리(헤이스팅스 메인 스트리트 등)에 홈리스와 마약 중독자들이 몰려 있어 상당히 위험하므로 이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현지에서 소소하게 느낀 독특한 환경 변화도 있었습니다. 캘거리에는 길고양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 길다람쥐나 길토끼가 쉽게 눈에 띄는데, 한국에서 보던 토끼와는 외형이 다르게 좀 못생겼고 정말 빠릅니다.

### 날씨와 의류 및 침구류 준비 팁

출국 전 의류 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여름이라는 생각에 나시나 얇은 옷 위주로 챙기고 긴팔은 적게 들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해가 안 뜨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기온이 떨어져 상당히 추웠습니다. 결국 현지에서 두꺼운 후리스를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여름에 가더라도 패딩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두께의 긴팔 옷과 잠옷을 챙겨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침구류의 경우 기숙사에서 기본 이불과 베개를 제공해주지만 이불이 매우 얇은 편입니다. 현지는 여름이라도 에어컨 없이 잘 수 있을 정도로 밤에는 기온이 차서 자칫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쓰려고 가져갔던 두툼한 담요를 이불 위에 겹쳐 덮어 별도의 이불 구매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얇은 이불보다는 한국에서 따뜻한 담요나 침구류를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이 정말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 생활용품 및 식생활 팁

전자기기는 110V 호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기는 110V 전용 제품을 새로 준비해 가야 하며, 고데기의 경우 프리볼트 제품이라면 한국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챙겨가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생활 측면에서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해 자주 즐기기 좋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매번 음식을 사 먹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어, 한국에서 참치캔이나 봉지라면 등을 넉넉히 챙겨가면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해 먹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캘거리 | 파견기간 |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월      12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교내 국제교류원 공지사항을 통해 캐나다 캘거리 어학연수 프로그램 선발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하여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2차 면접 전형을 앞두고 영어 자기소개와 캘거리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한 동기 및 목표를 영어 답변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 면접 당일에는 긴장한 탓에 준비한 만큼 완벽하게 답변하지는 못했지만, 면접관이신 교수님께서 편안하고 부담 없는 분위기를 이끌어 주신 덕분에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최종 합격 이후 비자(eTA) 발급과 항공권 예매 등 출국에 필요한 주요 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크게 인상되었던 시기였으나, 계속해서 확인한 끝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4주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정이었던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 비상 연락망, 현지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담당자분께서 지속적으로 공지와 안내를 제공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체계적으로 출국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캘거리 대학교는 캠퍼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가는 데만 20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교내에만 버스 정류장이 2개 마련되어 있을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났으며, 시내 중심가까지도 여러 명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시내 이동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다만 캠퍼스 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훌륭한 체육·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굳이 시내로 나가지 않고도 교내에서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주변 환경 역시 훌륭하여, 도보로 10분 거리에 대형마트와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등이 위치해 일상적인 식료품 구매나 식사를 해결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의 현지 날씨는 한 달 내내 맑고 쾌적하여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흔히 캐나다는 설경이 펼쳐지는 겨울이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름의 캐나다는 야외 활동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계절이었습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이론 수업은 철저한 레벨 테스트를 거쳐 세분화된 수준별 클래스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오전의 체계적인 문법 수업과 오후의 발음 및 문학 수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의 주입식 수업 방식과 가장 달랐던 점은 '수업 중 영어 사용 강제 (English-Only)' 규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모든 생각을 영어로 전환해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친구나 외국인 친구를 가리지 않고 오직 영어로만 대화해야 했던 환경이 초기에는 다소 불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력을 키우는 데 가장 유익했던 점이었습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주말에는 현지 주요 관광지와 공룡 박물관을 방문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진행했고, 희망자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밴프와 재스퍼 같은 세계적인 국립공원을 탐방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특히 차량으로 오랜 시간 이동해야 했던 재스퍼에서의 시간은 이번 캐나다 체류 기간 중 가장 단연 기억에 남는, 두 번 다시 겪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음에도 대자연의 웅장한 풍경에 매료되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산행을 기꺼이 다녀올 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동하는 차량 밖으로 엘크(와 야생 곰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여름인 7월에 거대한 빙하 위를 직접 걸어보았던 순간은 무척 이색적이고 특별했습니다. 본래의 가장 큰 목적인 어학 학업에 충실했던 것은 물론이지만,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다채로운 대자연 및 현지 문화 체험 활동이 캐나다라는 나라를 더욱 강렬하고 아름답게 기억하게 만들어 준 귀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체류 기간 동안의 숙소는 교내 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하나의 객실을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형태였지만, 내부에서는 각자 독립된 1인실을 배정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개인 휴식에 있어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의 경우 기숙사 내에 주방 시설(조리 도구, 오븐기, 전자레인지 포함)이 잘 마련되어 있어 거의 매일 직접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캠퍼스 바로 인근에 대형 마트가 위치해 있어 굳이 비용을 들여 외식을 할 필요가 없었고, 현지의 식재료들이 전반적으로 신선하면서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유학생 입장에서 부담 없이 요리하며 생활하기에 매우 만족스럽고 훌륭한 환경이었습니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파견 기간 동안 동아리나 기타 세부 프로그램까지는 깊이 탐색하지 못했으나, 교내에 갖추어진 다양한 체육 및 편의 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캘거리 대학교 캠퍼스 내에는 최신식 헬스장과 수영장을 비롯해 아이스 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학업 외 시간에 운동을 즐기기에 매우 쾌적했습니다. 또한 각종 액티비티 용품과 운동 기구를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교내 대여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준비 없이도 다양한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현지 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무척 친절했으며, 체류하는 동안 인종 차별은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긍정적인 반응에 호감을 느끼고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현지인들이 많아 따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체감했던 문화적 차이는 팁문화였습니다. 서버가 직접 응대하는 식당에서는 팁 지불이 필수적인 예절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를 생략할 경우 현지에서는 매우 이상하거나 무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내 중심가에 홈리스(노숙자)가 다소 분포해 있었습니다. 체류 중 특별한 위협이나 문제는 없었으나, 늦은 시간 시내를 방문할 때에는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9. 관련 사진

|                                                                                     |                                                                                     |
|-------------------------------------------------------------------------------------|-------------------------------------------------------------------------------------|
|    |   |
|   |  |
|  |                                                                                     |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캘거리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월 15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국제교류원에서 안내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 자격과 모집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지원 서류로는 지원 동기와 어학연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왜 켈거리 대학교를 선택했는지, 이번 연수를 통해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고 싶은지를 진솔하게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서류 제출 이후 국제교류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선발 결과를 통보받은 뒤 비자, 항공권, 기숙사 신청 등 이후 준비과정에 대한 세부 안내를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캐나다는 6개월 이내 단기 어학연수의 경우 전자여행허가(eTA)로 입국이 가능하며, 별도의 비자 없이 일반적인 eTA를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이루어졌지만 여권 정보와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항공권은 트래블로카를 통해 출국 2~3주 전에 예매하였는데, 지나치게 이르게 예매하기보다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된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수하물은 23kg 기준에 맞춰 옷, 생필품, 상비약 등 한 달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준비하였고, 특히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의약품은 넉넉히 챙겨갔습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캘거리 대학교는 캠퍼스 규모가 크고 쾌적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건물과 시설 모두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을 재학(연수)생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날씨는 연수 기간 한 달 내내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져 학교 생활과 주말 여행 모두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고, 건조하고 선선한 여름 날씨 덕분에 야외활동을 하기에에도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저는 총 7개 레벨 중 4레벨 과정으로 배정되어 수업을 들었으며, 제 수준에 잘 맞는 레벨에서 다양한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은 기본 ESL(영어 의사소통) 수업, 읽기(Reading) 수업, 발음(Pronunciation) 수업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수업마다 실용적인 회화와 상황별 표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반의 인원이 많지 않아 선생님과 학생,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국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암기와 문법 위주가 아니라 실제 발화와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고, 발음 교정과 자연스러운 억양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회화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학교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외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유료로 진행된 밴프(Banff) 투어에 참가하여 로키산맥의 웅장한 자연경관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재스퍼(Jasper)는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녀온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쉬움이 남아 다음 기회에는 꼭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거리를 대표하는 축제인 스탬피드(Stampede)에도 참여하여 현지의 문화와 활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무비나잇(Movie Night)과 같은 소소한 교내 프로그램들도 현지 학생 및 다른 나라 연수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숙소는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였으며,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한 달간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개인 방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같은 유닛을 사용하는 인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화장실 역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와 물품들이 대부분 제공되어 있어 별도로 준비해야 할 부담이 적었습니다. 식사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으며, 재료를 구하기 어렵지 않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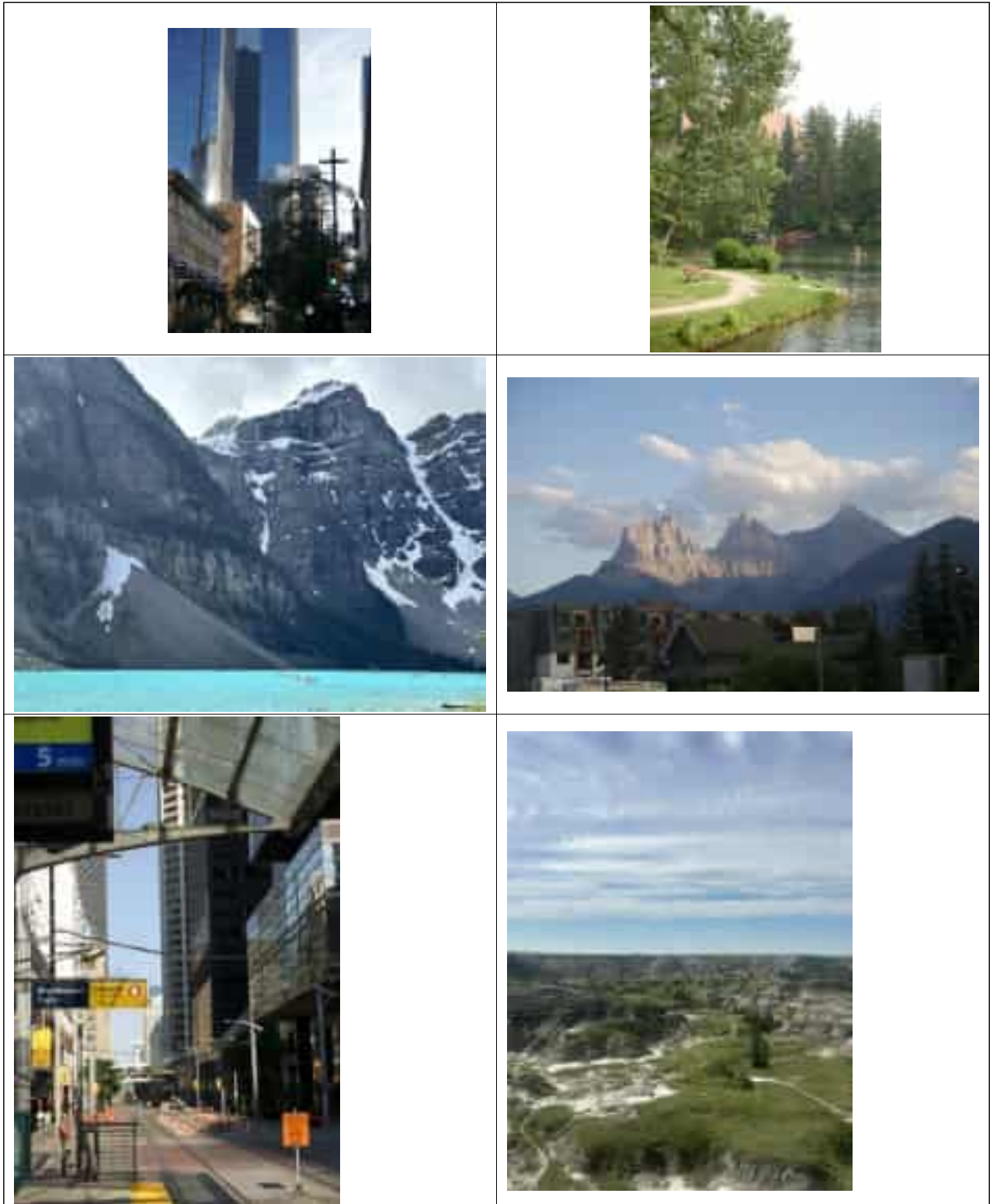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캘거리 대학교는 수영장, 운동장, 헬스장, 클라이밍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이 모든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었습니다. 덕분에 학업과 병행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교 내 다양한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캠퍼스 생활 전반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캘거리에서 생활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나 카페 등 일상 속에서 나누는 스몰톡 문화가 인상 깊었고, 이를 통해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들도 대체로 맛이 좋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어 힐링이 되었습니다. 쇼핑하기에도 좋은 환경이어서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날씨와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교내 활동은 물론 교외 여행까지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연수 기간 동안 크게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으나, 시내 일부 지역에 노숙인이 다소 보이는 편이었으므로 늦은 시간 이동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학교 주변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대학교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캘거리 | 파견기간 | 2025학년도 동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08월 02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평소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의지가 있어 이번 방학 동안 토익을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 공지를 접하게 되었고, 단순한 자격증 준비를 넘어 실전 어학 감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지원 준비 과정에서는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다녀온 선배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류 작성법부터 면접 대비 팀까지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참고하여,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진정성 있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의 조언 덕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제출하며 지원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수 관련 일정과 제반 사항을 상세히 전달받아 차근차근 출국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항공권은 안정적인 일정을 위해 해당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고 예매했습니다.

캐나다 연수를 위한 비자는 eTA(전자여행허가) 발급으로 진행 가능하여 6월 중 온라인으로 용이하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지 교육기관 배정을 위해 대학 자체 레벨테스트를 온라인으로 치렀습니다. 생각보다 테스트 규모가 크고 에세이 작성 문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지만,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비롯한 제반 제출 서류 절차 역시 카카오톡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안내받아 차질 없이 연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학교 캠퍼스는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으며, 다양한 단과대학 건물들과 함께 쾌적하고 넓은 교내 도서관 시설이 무척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운타운까지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시설의 경우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가장 가까운 마트가 있었고, 더 큰 규모의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는 주로 우버(Uber)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현지 날씨는 우리나라의 봄에서 초여름 정도의 쾌적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매우 큰 편이라 아침 등교 시간에는 쌀쌀함을 느낄 정도였고, 점심 이후부터는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온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가벼운 겹옷을 챙겨 다니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이번 연수 동안 총 3가지 과목인 문법, 발음, 문학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문법 수업은 일주일 내내 매일 진행되었으며, 발음 수업과 문학 수업은 요일별로 번갈아 가며 진행되었습니다.

문법 수업은 교재와 자체 프린트물을 활용하여 현재형, 현재진행형, 과거형, 과거진행형 등 주로 핵심 시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2회의 정기 시험과 2회의 팀 발표를 진행하며 학습한 문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발음 수업은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본 발음기호 읽기부터 시작해 한국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유사 발음 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듣고 직접 따라 하며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학 수업은 약 40쪽 분량의 얇은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도서를 읽고 관련 프린트물 숙제를 해결해 오는 과제 기반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각자 맡은 챕터의 내용을 돌아가며 소개하고, 책의 주제와 인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수동적인 강의식 수업 위주의 국내 교육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가장 많아 현지 어학연수의 장점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현지 생활을 하며 가장 깊게 느낀 점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문화는 수업 시간에도 잘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으면, 선생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스스로 단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북돋아 주시며 문장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발음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끝까지 경청하고 하나씩 교정해 주시면서 이해하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성 어린 배려와 웅원 덕분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학 실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숙소는 4인 1실 형태의 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화장실이 2개 갖춰진 구조였으며, 개인 공간으로 각자 독립된 방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방 내부에는 침대, 책상, 드레스룸이 구비되어 있었고, 공간이 넓고 채광이 좋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침구류까지 제공받아 만족스럽게 지냈습니다.

식사의 경우 점심은 교내 푸드코트를 주로 이용했으며, 한 끼에 평균 13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녁은 기숙사에 잘 갖춰진 식기도구를 활용해 해결했습니다. 룸메이트들과 함께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본 뒤 파스타, 고기, 라면 등 다양한 요리를 직접 해 먹으며 식비도 절감하고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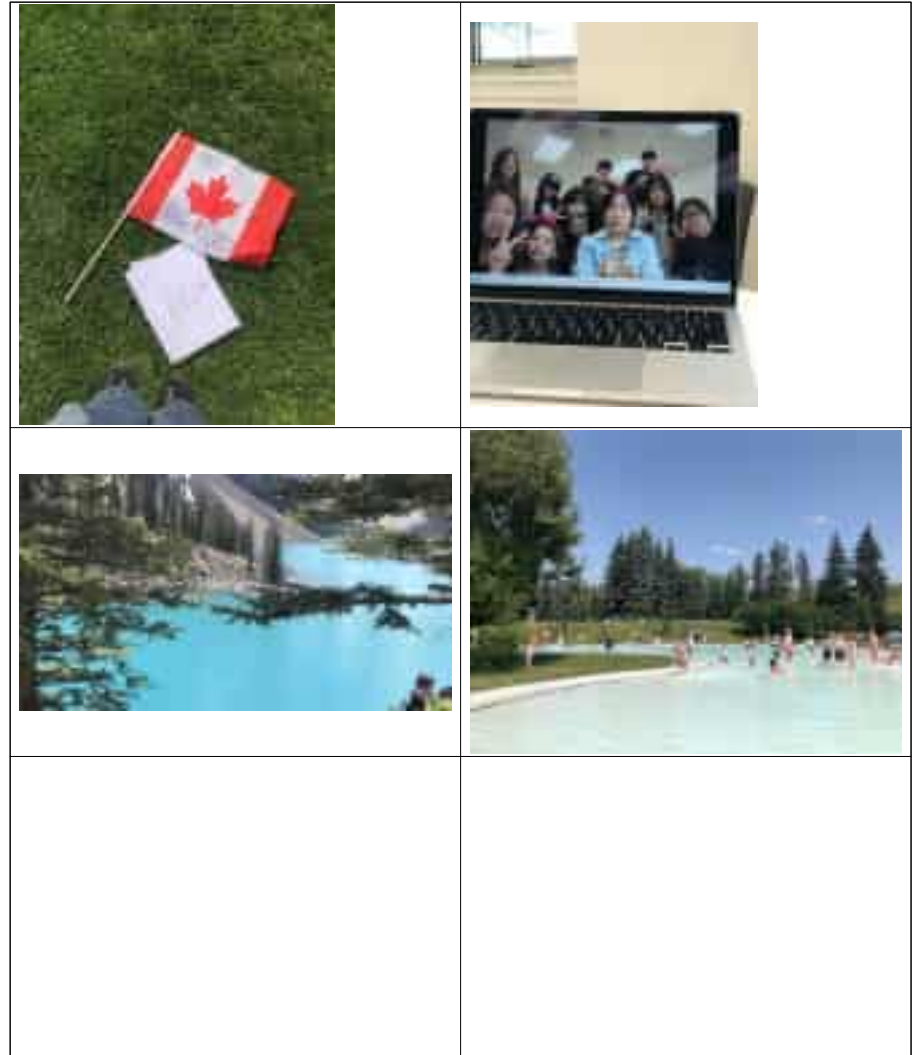
교내 부대시설로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은 기구와 시설이 무척 훌륭하게 갖춰져 있었고, 수영장 역시 깨끗하고 넓은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개인 샤워 부스와 사우나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어 운동 후 이용하기에 매우 쾌적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발급받은 학생증(UniCard)만 있으면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방과 후 및 주말에 진행된 어학연수생 전용 프로그램도 매우 알차았습니다. 웹캠 파티를 시작으로, 버스를 타고 인근 지역인 드림헬러를 관광하거나 밴프(Banff)를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등 다양한 문화 탐방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단체로 이동하다 보니 개별 관람 시간이 다소 짧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힘든 지역을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밴프 탐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어 부담 없이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현지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어 공부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현지인들과 더 한 단계 깊은 소통을 나누고 싶다는 아쉬움과 욕심이 남기도 했습니다. 치안 부분에서는 출국 전 걱정이 많았으나, 학교가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염려했던 폭력이나 위험 요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 캘거리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 월 14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캐나다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먼저 연수 국가와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기간 및 교육과정 등을 비교하여 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영어를 단순히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며 영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 캐나다 University of Calgary의 English Language Program을 선택하였다. 이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지원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및 개인정보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신청과정에서는 여권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였으며, 학교에서 보내오는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등록 절차를 확인하였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프로그램 비용을 납부하고 등록을 확정하였으며, 학교에서 발급되는 입학 관련 서류와 수업 일정, 오리엔테이션 및 레벨 테스트 등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였다. 또한 캐나다 입국을 위해 여권과 eTA 등 필요한 입국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항공권과 숙소를 연수 일정에 맞추어 예약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University of Calgary의 기숙사인 Cascade Hall에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에 출국 전에 숙소 관련 정보와 학교까지의 이동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사용할 결제수단과 휴대전화 및 데이터 사용 방법, 여행자보험 등 현지 생활에 필요한 사항도 준비하였다. 출국이 가까워진 후에는 학교에서 전달되는 이메일과 사전 안내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영어 레벨 테스트 등 출국 전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권, 항공권, 입학 관련 서류, 숙소 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개인 물품을 준비한 후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록을 마친 후에는 실제 캐나다에서 생활하기 위한 출국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연수 일정에 맞추어 항공권을 예약하고 출국 및 귀국 날짜와 비행시간, 수하물 규정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캐나다 입국을 위해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단기 어학연수 일정에 맞는 입국 요건을 확인한 후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였다. 신청 과정에서 여권 정보와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 전에 입국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 이후 University of Calgary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인 Cascade Hall 숙소를 신청하고 입실 일정과 숙소 이용 방법, 학교까지의 이동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였다. 한 달 동안 현지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여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준비하고 필요한 만큼 캐나다 달러를 환전하였으며,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식비와 교통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원활하게 연락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로밍 및 데이터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였다.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수하물 분실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도 확인하였다. 출국 전에는 캐나다의 날씨와 생활환경을 미리 알아보고 현지에서 필요한 의류와 세면도구, 전자기기, 충전기 및 어댑터, 개인 상비용품 등을 준비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는 만큼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방법과 현지 대중교통 이용 방법, 학교 주변의 편의시설 등을 사전에 찾아보며 현지 생활에 대한 준비도 진행하였다. 학교에서 전달받은 오리엔테이션과 수업 관련 안내, 영어 레벨 테스트 등에 대한 사항도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출국 전 여권, eTA 승인 관련 정보, 항공권, 입학 관련 서류, 숙소 정보, 여행자보험 등 중요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개인 물품을 빠짐없이 준비한 후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University of Calgary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넓은 캠퍼스와 다양한 교육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다. 캠퍼스 내에는 강의실과 도서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다. 학교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캠퍼스의 건물과 시설을 찾아가는 것이 다소 익숙하지 않았지만, 생활하면서 여러 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학교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앨버타주의 주요 도시인 캘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도심과도 비교적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내의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기 편리하였다. 또한 캠퍼스 주변에는 식료품점, 음식점, 카페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 어학연수 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다. 특히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캘거리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캘거리는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도시 주변으로 넓은 자연환경과 공원이 많았으며, 조금만 이동하면 캐나다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한국과는 다른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 현지 날씨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건조하고 일교차가 있는 편이었으며, 같은 날에도 시간대에 따라 체감온도가 달라질 수 있어 외출할 때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있어 외출 시 겉옷이나 우산 등을 준비하는 등 날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단순히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의 기후와 생활환경에 직접 적응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캐나다의 자연환경과 도시생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University of Calgary가 어학연수 장소로 적합하다고 느꼈다.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어학연수 기간 동안 University of Calgary의 English Language Program에 참여하여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이론수업을 수강하였다. 수업은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문법과 어휘 등 기본적인 영어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에 필요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영어 수업이 교과서나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문법과 어휘를 학습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지 수업에서는 배운 영어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수업 중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생들끼리 대화하거나 짝 또는 소그룹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시간이 많았으며, 영어를 완벽하게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영어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상대방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업 중 영어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반복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점차 긴장감이 줄어들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답변을 바로잡아 주거나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실제 영어 표현을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한국에서 혼자 영어를 공부할 때보다 영어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실생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어학연수 기간 동안 수업 외에도 캐나다의 문화와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에 참여하였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캘거리 시내의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현지의 자연환경을 경험하면서 캐나다의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캘거리 타워와 피스 브리지 등 캘거리의 대표적인 장소를 방문하면서 도시의 모습과 현지인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면서 한국과 다른 교통문화와 생활방식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주변 지역을 여행하며 캐나다의 넓은 자연환경을 직접 접할 수 있었고, Canmore와 Banff 지역 등을 방문하여 산과 호수 등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연경관을 경험하였다. 특히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존해야 할 환경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어학연수 기간 동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었다. 서로의 음식, 학교생활, 가족문화, 여행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같은 상황에서도 문화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오히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현지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어로 해결하면서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 체험을 통해 캐나다의 자연환경과 도시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다른 문화를 무조건 낯설게 받아들이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도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어학연수 기간 동안 University of Calgary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인 Cascade Hall에서 생활하였다. 학교 기숙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캠퍼스와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며, 통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수업과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기숙사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점에서 다소 긴장되었지만, 공용공간이나 학교생활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와 달리 청소와 세탁, 개인 물품 관리 등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기숙사 주변에는 학교 내 편의 시설과 식당 등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으며,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주변 상점이나 마트 등을 직접 이용하였다. 식사는 한국에서처럼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먹기보다는 개인 일정과 수업시간에 맞추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주변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식료품을 직접 구매하여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식문화와 식재료, 음식의 양과 가격 등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외식을 할 때에는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팁을 추가로 지불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부분으로 느껴졌다. 또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각 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다른 식습관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숙소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해외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생활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배려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독립심과 적응력을 기를 수 있었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University of Calgary는 수업을 위한 강의시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업 외의 시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학교 내에는 학생들을 위한 운동 및 여가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또는 여유 시간이 있을 때 학교 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운동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별도의 장소를 찾아 이동하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수업과 여러 활동으로 피로를 느낄 때 수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교에는 체육시설 외에도 도서관,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 식당 및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학업과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캠퍼스의 규모가 크고 시설이 다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용 방법이나 위치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 시설을 직접 이용하며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다. 어학연수 학생들도 학교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수업 외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거나 학교 주변을 탐방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할 기회도 많아졌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역시 어학연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특히 학교 내 수영장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었고, 해외에서도 내가 평소 즐기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학교의 다양한 부대시설과 학생 지원 환경은 어학연수 기간 동안 학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학생들 간의 교류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학교생활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캐나다에서 약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과 다른 생활환경과 문화에 직접 적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생활방식과 주변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다소 긴장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의 생활방식에 점차 적응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교통 이용이나 식사, 쇼핑, 학교생활 등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대표적인 Culture Shock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방식과 생활문화의 차이였다. 캐나다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비스 이용 시에도 직원과 손님이 비교적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지불하는 문화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서비스 방식 등도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이러한 차이를 경험하면서 어느 한쪽의 문화가 더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생활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영어를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겼다. 안전 측면에서는 낯선 해외에서 생활하는 만큼 늦은 시간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이동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살피며 개인 소지품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휴대전화와 지갑, 여권 등 중요한 물품은 항상 주의해서 보관하고, 혼자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숙소의 위치 및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해외생활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와 함께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하는 책임감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환경도 직접 경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익숙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어학연수는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독립심,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 9. 관련 사진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 캘거리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 월 15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어학연수에 지원하기 위해 먼저 학교에서 안내해 준 모집 공고와 지원 자격, 일정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였다.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며 준비하였으며, 학교에서 안내해 주는 절차에 따라 지원을 진행하였다.

서류 제출 후에는 선발 결과를 기다렸고, 최종 선발된 후에는 어학연수 일정과 출국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받았다. 이후 항공권과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될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숙소 등에 대한 안내도 확인하였다. 처음 해외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것이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하나씩 확인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출국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어학연수가 확정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출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먼저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출국일과 프로그램 시작일을 고려하여 항공편을 정했고, 처음 혼자 해외로 나가는 것이어서 공항에서 해야 할 일이나 입국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미리 찾아보았다.

또한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도 하나씩 준비하였다. 옷이나 세면도구 같은 기본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와 전자기기 충전기, 노트북과 아이패드 등도 챙겼다. 현지에서 사용할 교통수단이나 숙소에 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하면서 출국을 준비하였다.

처음 장기간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고, 출국 전까지 필요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여행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한 달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어학연수를 진행한 학교는 University of Calgary로, 학교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건물도 많고 캠퍼스가 넓어서 학교 안에서 이동할 때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학교의 전체적인 구조를 익히는 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며칠 동안 생활하다 보니 자주 다니는 건물이나 길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 학교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비교적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학교 주변에는 넓은 잔디 공간과 나무가 많았고, 학교를 오가면서 토끼나 다람쥐를 자주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이런 동물들을 자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신기했고, 캐나다의 자연환경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현지 날씨는 처음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추웠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비가 많이 내렸다.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비가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가 확실히 더워졌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어학연수 기간 동안 ESL 수업, 발음 수업, 문학 서클 수업 총 세 가지 수업을 들었다. 발음 수업에서는 헛갈리거나 어려운 영어 발음을 중심으로 배우고 다양한 게임과 조별 활동을 통해 직접 듣고 말해보는 연습을 하였다. 문학 서클 수업에서는 영어 책을 한 권 읽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책의 내용을 준비하여 조원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내 교육과 비교했을 때에도 정답이나 문법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과 달리, 현지 수업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대화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느껴졌다.

ESL 수업은 교재를 중심으로 문법, 듣기, 쓰기, 말하기 등을 함께 학습하는 방식이었다. 조별활동과 짧은 발표가 많았으며, 정확한 문장과 발음을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이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어학연수 기간 동안 캐나다 데이, 캘거리 스탬피드, 밴프 등을 경험하며 현지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경험한 캐나다 데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으며,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옷이나 소품을 착용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캘거리 스탬피드 역시 다양한 마켓과 공연, 이브닝 쇼 등을 즐길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경마와 큰 규모의 불꽃축제를 직접 볼 수 있어 기억에 남았다. 또한 밴프를 방문하여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넓은 자연환경과 산, 호수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한 달 동안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다른 생활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먼저 가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작은 일에도 자연스럽게 “Thank you”와 “Sorry”를 표현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 반대로 길에서 대마 냄새를 자주 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어학연수 기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처음 입실했을 때 전반적으로 청결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생활방식으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와 건식 화장실이 특히 익숙하지 않았으며, 샤워할 때 물이 바닥에 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려웠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파티로 인한 소음이나 환기, 창문과 방충망 등의 시설적인 문제도 있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학교에서 제공해준 이불의 상태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던 점도 아쉬웠다.

식사는 대부분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해 먹었다. 학교 주변에 음식점이 많지 않고 일찍 문을 닫는 곳도 많아 외식보다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심은 주로 도시락을 준비했으며, 가끔 학교 내 음식점이나 외식을 이용하였다. 배달음식은 가격에 비해 만족도가 높지 않아 자주 이용하지 않았다.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시설을 많이 이용해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학교 규모가 큰 만큼 수영장, 헬스장 등이 크고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학연수 초반에는 학교 투어에 참여하여 학교의 주요 시설과 위치를 둘러보았다. 다만 참여 인원이 많아 설명을 자세히 듣기 어려웠던 점은 조금 아쉬웠다.

또한 어학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외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직접 참여해보니 수업 외에도 현지의 다양한 장소와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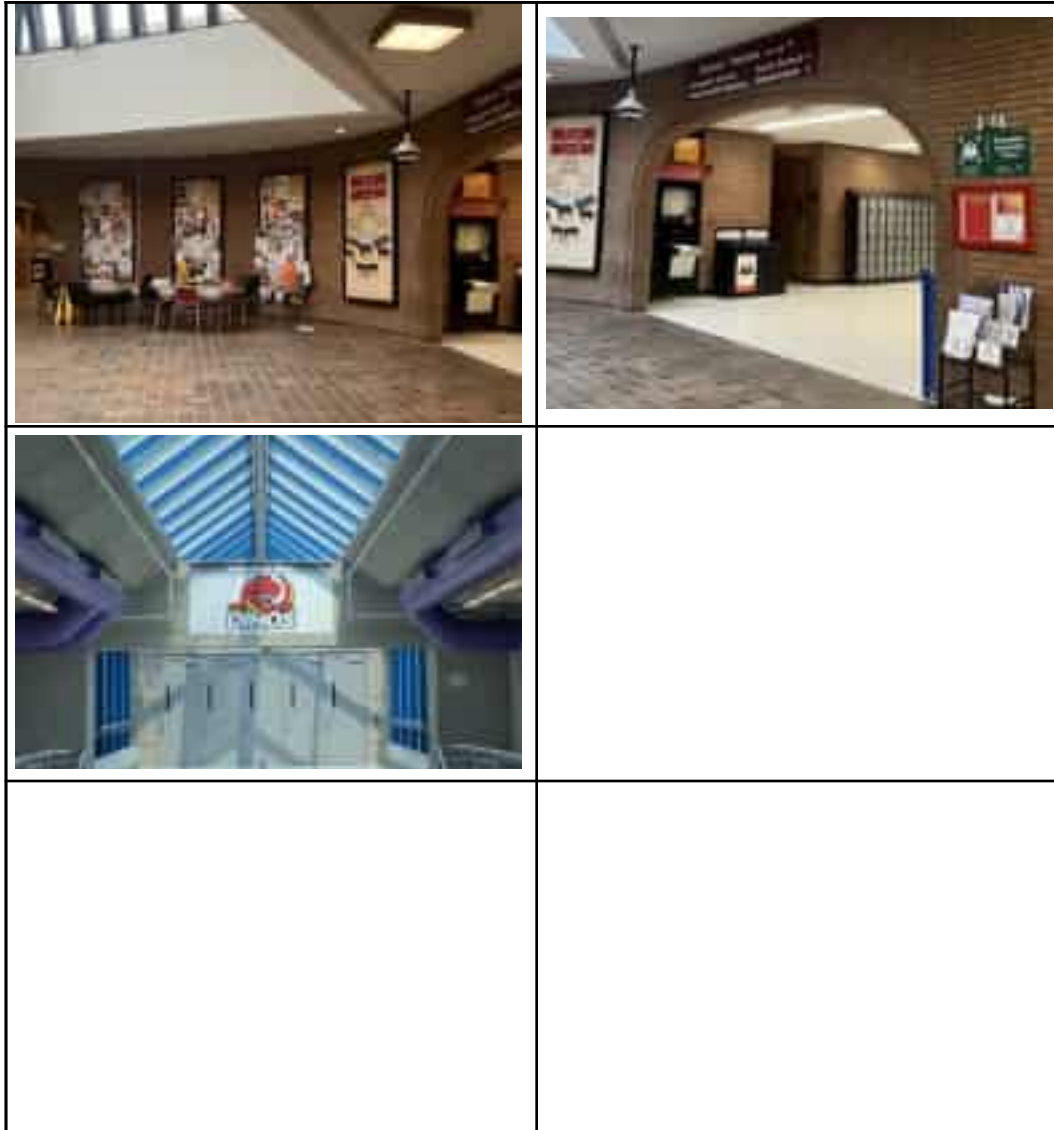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캐나다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특히 학교생활이나 조별활동, 일상적인 대화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길에서 홈리스를 자주 볼 수 있었던 점과 한국보다 가게가 일찍 문을 닫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여름에 해가 늦게 지는 것도 한국과 달라 신기하게 느껴졌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이 생활했지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다.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The University of Calgary)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 캘거리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월      21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졸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해외연수와 같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직접 경험하고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어학연수 프로그램 모집 공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교류원 홈페이지에 캐나다 어학연수 모집 공지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지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당시에는 지원동기 및 상세 준비사항, 연수 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학성적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도의 어학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원동기와 연수계획을 더욱 꼼꼼하게 작성하며 제가 어학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와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대면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은 2:2로 진행되었으며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 후 이틀 뒤 메일을 통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후 연계된 어학원을 통해 어학연수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받았습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최종 합격 후 연계된 어학원을 통해 어학연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먼저 캐나다 입국을 위해 여행용 전자여행허가인 eTA를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신청 후 이메일을 통해 발급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출국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항공권은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인한 비용 변동을 고려하여 가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다가 출국 약 3개월 전에 예매하였습니다. 숙소는 기숙사와 홈스테이 중 기숙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어학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현금으로 환전하기보다는 정해진 예산에 맞추어 트래블카드에 필요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원활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eSIM도 미리 구매하였습니다.

출국 약 일주일 전에는 본교에서 진행된 최종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어학연수 일정과 현지 생활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국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캐나다 어학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연수를 진행한 학교의 캠퍼스는 규모가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건물 간 거리가 있어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 10분 이상 걸리기도 했으며 수업마다 강의실이 위치한 건물이 달랐기 때문에 매일 수업 장소를 확인하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카페, 식당, 편의점, 약국, 영화관, 헬스장,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학교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제가 연수를 갔던 시기에는 방학 기간이어서 현지 학생들은 많지 않았지만 어학연수를 위해 온 대만,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켈거리 다운타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버스나 트램을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운타운까지는 약 30분 이상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숙사에서는 학교 뒤편으로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여러 식당과 마트가 있어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외식을 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켈거리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도착 후 약 2주 동안은 소나기가 자주 내려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최저기온 약 15도, 최고기온 약 25도 정도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차이는 습도가 높지 않아 쾌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비교적 시원하게 느껴졌으며 일교차가 있기는 했지만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캐나다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지에 도착한 후 배정 받은 반에서 이틀에 걸쳐 추가로 간단한 확인 테스트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반을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은 문법(Grammar), 문학 서클(Literature Circle), 발음(Pronunciation)으로 총 세 과목이었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학교에서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운영되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경에 끝났으며 오전에는 3시간 동안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문학 서클과 발음 수업을 번갈아 수강하였습니다. 한 반에는 약 15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교재가 있었지만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짝이나 그룹을 이루어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많았으며 수업 중간중간 게임이나 퀴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정도 발표를 했고 숙제는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시험은 연수 기간 동안 두 번을 봤습니다. 또한 강의실과 강의실이 있는 건물 내에서는 영어로만 대화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 수업 시간 외에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영어교육과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낀 점은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문법이나 영어 지식을 설명하고 학생이 이를 듣고 문제를 풀거나 암기하는 방식의 수업이 많았다면 캐나다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훨씬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으며 이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학생의 국적에 따라 발음과 억양이 다양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 중 자신이 정답을 모르거나 영어로 말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교사 역시 학생의 실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저 역시 영어를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문법적으로는 저보다 부족한 학생들을 보면서 영어 의사소통에서는 문법의 완벽성만큼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 역시 문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영어로 말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어학연수 기간 동안 학교에서 진행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캘거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밴프와 드럼헬러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버스와 일정 등을 직접 알아보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밴프와 드럼헬러를 방문하면서 캘거리를 비롯한 캐나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며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 체험은 캘거리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스탬피드(Stampede) 축제였습니다. 스탬피드는 매년 캘거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지역 축제로 로데오와 퍼레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의 서부 개척시대와 카우보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실제 축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캐나다의 지역 문화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도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친절함 매너였습니다.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뒤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면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문을 잡아주거나 다른 사람과 실수로 살짝 부딪히거나 스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사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을 건널 때 멀리서 걸어오고 있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이 기다려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거나 간단한 대화를 하는 문화 역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같은 상황에서도 나라와 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행동과 매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평소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캐나다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기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숙소는 홈스테이와 기숙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며 저는 학교 내에 위치해 있어 등하교가 편리하고 홈스테이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숙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기숙사가 학교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수업 건물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었고, 수업을 위해 별도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했습니다.

기숙사는 총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형태였으며, 모두 본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을 사용하고 공동 거실과 주방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세면대와 샤워실은 2명씩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세탁실은 지하 1층과 5층에 마련되어 있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과 다른 건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전반적인 기숙사의 시설과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식사는 현지의 물가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요리해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숙사에 공동 주방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 식재료를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었으며 점심도 친구들과 직접 요리하여 도시락으로 준비해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직접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지 마트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역할을 나누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에는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카페, 식당, 도서관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식당이 모여있는 푸드코드는 물가가 다소 높은 편이어서 점심 식사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가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학연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밴프 여행, 다운타운 투어, 스탬피드 축제 관람, 드럼헬러 관광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어학연수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웰컴파티와 연수를 마무리하는 졸업파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생들이 수업 외에도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고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일정과 교통편 등을 준비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아 학생들이 별도로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외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었으며 어학연수 기간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처음에는 영어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지만, 학교와 강의실이 있는 건물 내에서 영어만 사용해야 했고 마트나 식당 등에서도 최대한 번역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현지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일단 직접 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지 생활에서 경험한 문화 차이 중 하나는 팁 문화였습니다. 켈거리에서는 팁이 모든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저는 레스토랑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나 특히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팁을 지불하였습니다. 팁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변에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다른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방식도 현지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문화 차이로 인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생활방식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켈거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치안이나 소매치기 등으로 인해 크게 불안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내가 현지인에게는 외국인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지품을 잘 관리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다운타운에서는 길거리에서 홈리스들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적은 골목이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지날 때에는 주변을 확인하고 주의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단순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직접 생활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영어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9. 관련 사진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평택대학교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캘거리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 월 20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어학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학교에서 공지한 어학연수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 자격과 모집 일정, 연수 기간 및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였다. 지원을 결정한 후 어학연수 지원서와 자기소개, 여권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준비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서류 심사와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학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지원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다양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최종 선발 이후에는 본격적인 해외 출국 준비를 진행하였다. 먼저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수 국가와 체류 기간에 따라 필요한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를 준비하였다. 이후 출국 및 귀국 일정을 고려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과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준비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전 및 결제수단을 준비하고 학교와 숙소의 위치 및 대중교통 이용 방법도 미리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준비하면서 해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연수를 진행한 학교는 비교적 넓은 캠퍼스를 갖추고 있었으며 강의실, 도서관, 학생 휴게공간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학교 주변에는 식당과 카페, 편의시설 등이 있어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였다. 연수 기간 동안 현지의 날씨는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았다. 특히 기온과 습도, 일교차 등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으며 같은 기온이라도 한국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외출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옷을 준비하는 습관도 생겼다.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관광하는 것과 실제로 현지에서 생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어학연수에서는 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기본적인 영어 문법과 어휘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를 중심으로 학습하였다. 수업에서는 교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기만 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 많았다. 영어로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대화하는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틀릴까 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영어 수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영어를 실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었다. 한국에서는 영어 시험이나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캐나다에서는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또한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같은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발음이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이나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듣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어학연수 기간에는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현지의 주요 장소를 방문하고 캐나다의 음식과 생활문화를 경험했으며, 친구들과 함께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특히 현지에서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하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해 보는 경험이 기억에 남았다. 교과서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면서 영어가 그냥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색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번 문화 체험을 통해 해외여행처럼 짧게 방문하는 것과 직접 현지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정 기간 동안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연수 기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학교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통학하기 편리했으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 식사는 주로 기숙사에 있는 주방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먹었다. 캐나다 현지 마트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식사를 해결하였다. 한국에서 익숙하게 먹던 음식과 다른 식재료와 가격을 직접 경험하면서 캐나다의 식문화와 물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요리를 하면서 식사와 생활비를 스스로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활할 때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식사와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직접 해결하면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과 책임감도 기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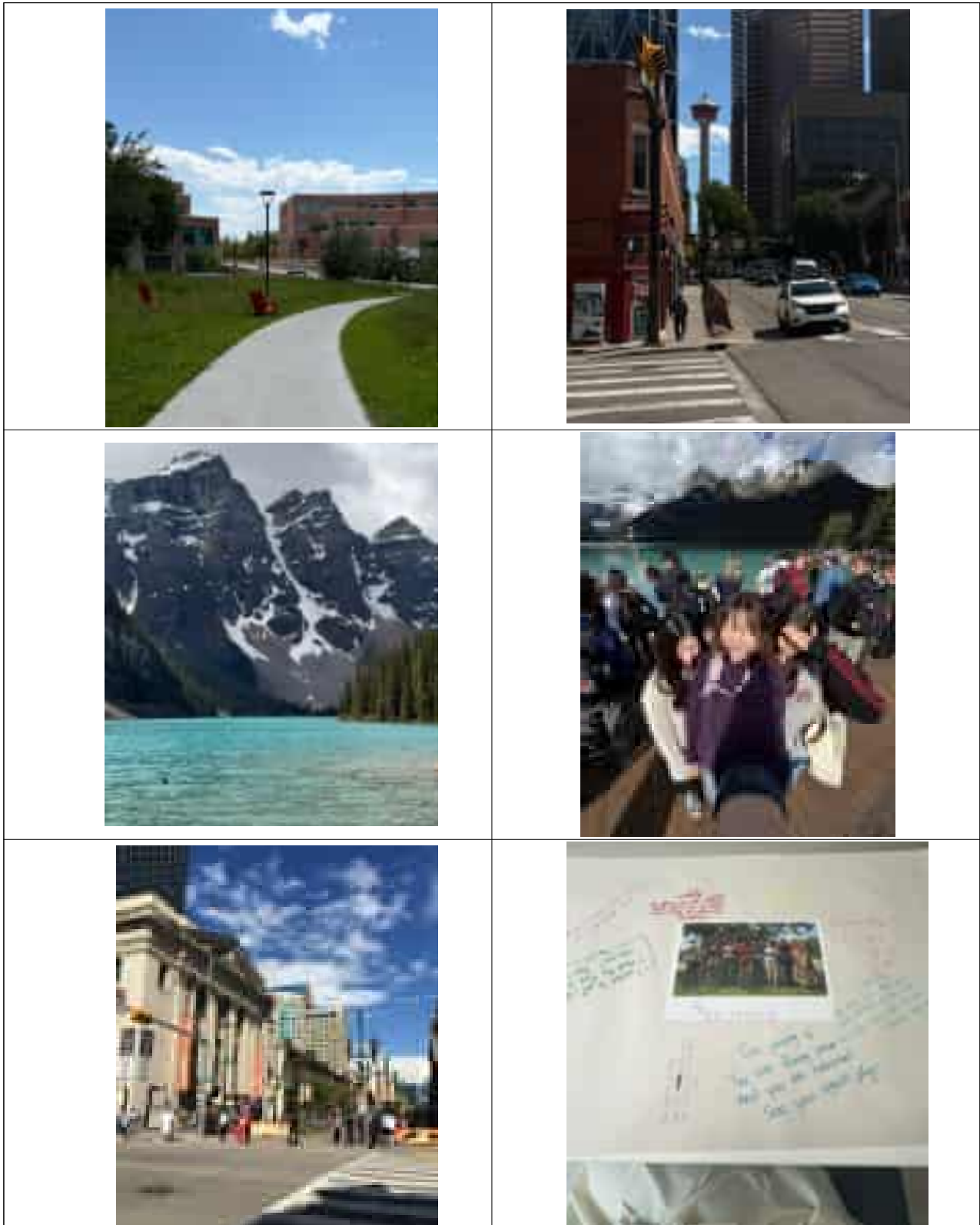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휴게공간, 식당 및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어학연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었다. 수업 외에도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특히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학생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어학연수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생활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실수할까 걱정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점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이번 캐나다 어학연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직접 생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특히 영어를 완벽하게 말하는 것보다 틀리더라도 먼저 말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실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

##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The University of Calgary |      |                     |
| 파견 국가/도시 | Canada / Calgary          | 파견기간 | 26.06.28 - 26.07.24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 월 5 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어학연수는 학교 국제교류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서 제출 후 면접 대상으로 선정되어 면접을 보았으며, 지원 동기와 어학연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자신의 생각으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 절차와 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 지원 과정을 통해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으며, 파견 학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통해 반을 배정받았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생활할 집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사용할 생활용품과 의류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출국 전에는 영어 회화와 기본 표현을 꾸준히 공부하며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은 다소 바빴지만, 미리 충분히 준비한 덕분에 현지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캘거리대학교는 예상보다 훨씬 넓은 규모의 캠퍼스를 갖추고 있었으며, 강의실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매우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트램을 이용하면 약 20분 만에 시내로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고, 생활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였습니다.

주변에는 공원과 호수, 강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트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려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생활 환경에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해가 늦게 저 늦은 시간까지도 비교적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며, 쾌적한 날씨와 아름다운 환경 덕분에 더욱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이번 어학연수에서는 문학(Literature), 문법(Grammar), 발음(Pronunciation)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발표와 토론, 게임,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수업 시간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영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입식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러한 교육 방식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학생증만 있으면 헬스장, 수영장, 클라이밍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시설 수준이 매우 뛰어나 놀랐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행에도 참여하였으며, 비용이 있는 프로그램도 가격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연수는 교실 안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기숙사는 개인 공간이 잘 보장되어 있었으며, 방도 넓고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중앙 엘리베이터가 한 달 동안 계속 고장 난 상태였고, 다른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귀국할 때는 무거운 캐리어를 계단으로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해서 해결하였으며, 외식 물가는 다소 비싼 편이라 직접 해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숙사 시설과 생활 환경은 만족스러웠습니다.

##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캘거리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 캐나다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었으며, 일정과 구성도 알차게 진행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지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학업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나 직급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편하게 대했으며, 공공장소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간표가 다소 유동적이었고,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필요한 업무는 수행하지만 한국처럼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개인의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신감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어학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며,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교류원 해외 어학연수 경험 보고서

|          |                               |      |            |
|----------|-------------------------------|------|------------|
| 파견 학교명   | 캘거리 대학교 University of Calgary |      |            |
| 파견 국가/도시 | 캐나다                           | 파견기간 | 2026학년도 하계 |
| 성 명      |                               | 학 과  |            |
| 학 번      |                               | 학 년  |            |

※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상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후 파일을 국제협력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ptuglobal@ptu.ac.kr)

※ 경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미제출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해야 합니다(수기 작성 불가).  
글자 수 초과, 사진 첨부 등에 따른 보고서 양식 편집은 가능합니다.

2026 년 8월 14일

평택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

### 1. 어학연수 지원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등)

지원 사유 등을 적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영어 성적도 가지고 있다면 제출합니다. 이후 서류 면접에서 합격하면 대면 면접을 준비합니다. 대면 면접은 다대다로 이루어지며 영어로 답변해야 하는 질문도 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 2. 어학연수 준비과정(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대행사를 통해 입학 서류와 입학금, 그리고 기숙사비를 납입합니다. 그리고 캘거리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등록과 레벨 테스트를 응시합니다. 항공권은 개인이 구매하고, e-Ta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에는 일주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 3. 학교 크기,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현지 날씨 등

캘거리 대학교는 광대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숙사부터 강의를 듣는 건물까지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캠퍼스 크기만큼 거대한 건물들이 10개 이상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캠퍼스를 통해 약 15분정도 걸으면 C-train이라는 트램을 탈 수 있는 역이 나옵니다. 트램을 타고 다운타운이나 스탬피드 파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는 숲과 연못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매일 아침 청설모, 토끼 그리고 오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수 동안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시원하고 건조한 기후로, 7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최고 기온 30도지만 습기가 없어 쾌적한 날씨입니다.

### 4. 이론수업 (교과목, 수업 진행 방법, 국내 교육과의 차이점 등)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문법 수업을 듣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 배정된 반에서 수업을 들으며, 문법과 어휘,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 등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발음 수업과 문학 수업을 듣습니다. 발음 수업에서는 영어의 발음 기호와 스트레스 등을 배우며, 문학 수업에서는 영어로 된 책을 읽고 팀원들과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3가지 수업 모두 한국과는 달리 개인이 아닌 반 친구들과의 토론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자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몇 수업은 시험을 치루어 수료증 성적에 반영됩니다.

### 5. 문화 체험(활동 내용, 배운점 및 느낀점)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했지만 그 중 3개에서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웰컴 이벤트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온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캐나다의 '친구 사귀기'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탬피드 퍼레이드 및 이브닝 쇼에서 행진을 보며 'Happy Stampede'라고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인사를 나누고 칭찬하고 소통하는 등 캐나다의 인사 문화와 대화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쇼를 통해서 캘거리의 카우보이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파티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료증을 받고 MVP를 선정하고 가라오케를 하는 등 한국에는 없는 졸업 축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 6. 숙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및 식사

기숙사는 4인 1실로, 공용 거실과 부엌, 화장실 2개, 그리고 개인 방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방은 넓고 쾌적하며 침대, 책상 그리고 큰 옷장이 있습니다. 공용 부엌에서는 요리를 할 수 있으며 큰 사이즈의 냉장고도 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동성의 한국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식사는 Mac Ewan Hall이라는 건물에 식당들이 모여 있어 점심은 주로 그곳에서 해결을 하고, 저녁은 기숙사에서 요리를 하거나 다운타운에서 식사를 합니다. 외식은 가격대가 한국보다 약간 있기에,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 기숙사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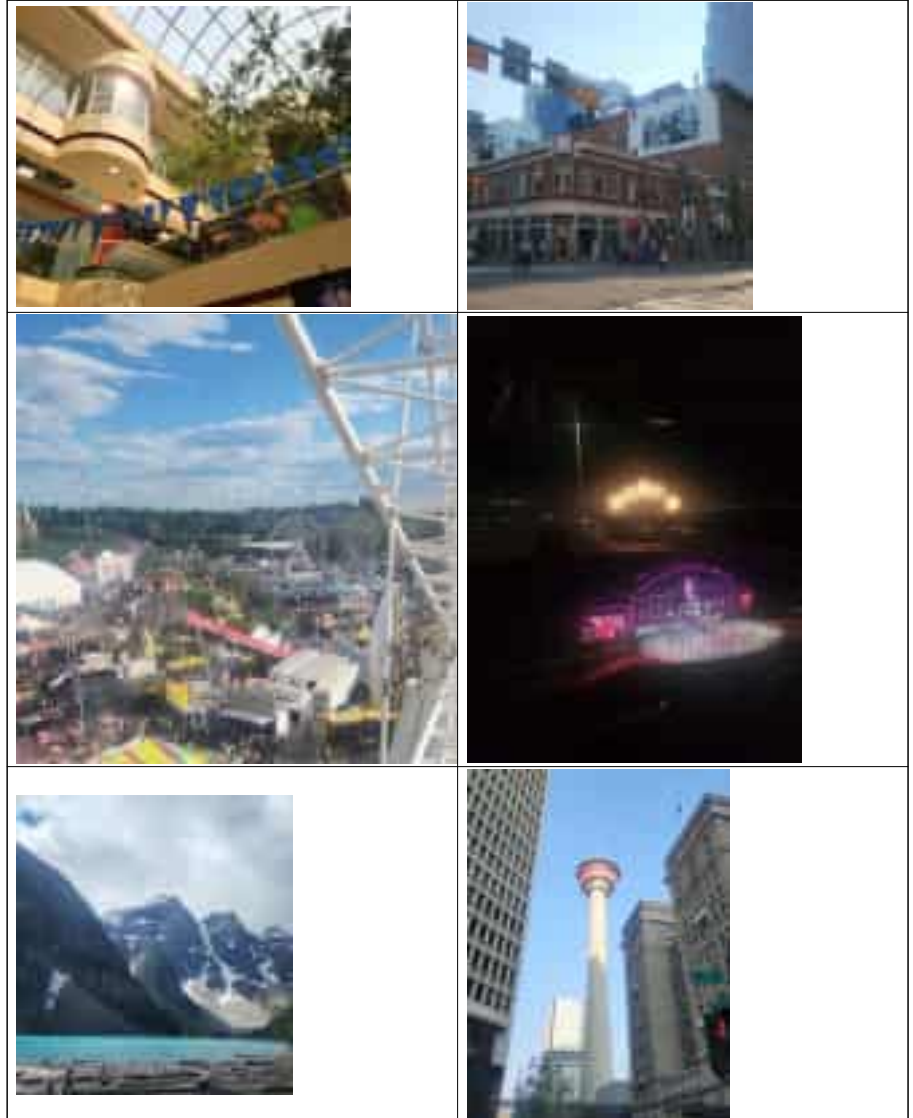
7. 학교 관련 기타 정보 (부대시설, 동아리, 어학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에는 카페와 도서관, 운동 시설, 수영장, 미술관 및 박물관, 혹은 그저 앉아서 공부하거나  
 쉴 수 있는 테이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켈거리 대학교  
 유니폼이나 굿즈를 판매하고 있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8. 기타 (현지에서의 생활, culture shock, 안전 상 유의사항 등)

캐나다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잘 모른다고 하여도 상호 존중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행정 등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  
 여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해가 밤 9시에 지기 시작하지만 다운타운을 다닐 때는 항상 조심  
 해야합니다. 켈거리는 치안이 좋은 편이지만 마약을 한 사람을 가끔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한 혼자서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관련 사진



※ 학우 및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